

한국포장기술사회 제7대 박인식 회장 선출 포장진흥법 부활 통해 패키징산업 인프라 구축 계획



박인식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3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박인식 교수를 선출했다.

1981년 국내 1호 포장기술사(김영호 소장)가 배출된 이후, 포장기술사회는 1995년 9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이래 현재 1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인식 회장은 7대 임원진을 구성하고 향후 포장진흥법을 부활하는 등 패키징산업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앞으로의 계획 및 단체 운영 방안을 들어보았다.

“오늘의 포장기술사회를 있게 한 역대 회장단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대 회장단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공약 사항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논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포장기술사회 제7대 박인식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당분야에서 회원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시간주립대학 금속공학과 박사과정 및 패키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박인식 회장은 그동안 CJ제일제당 포장재 기획 및 개발, 경북과학대학 패키징학과 교수, 경북신기

술포장센터 센터장 등 포장산업계와 포장학계에 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교수, LINC사업단의 산학협력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창조경제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IT, 물류 및 융복합산업은 패키징산업과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를 위한 핵심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박인식 회장은 “포장기술사회는 포장기술에 있어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닌 최고 역량의 회원들로 구성된 만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패키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박인식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환경과 정책의 변화, 패키징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 속에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술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첫 번째로 박 회장은 포장진흥법의 부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996년 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 폐지된 포장진흥법의 부활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의 패키징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0년 이후 발간이 중단된 한국포장기술사회지를 연 1회이상 발간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에 대한 포장기술사회의 역할을 다시한번 되새기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창립 초기, 포장기술사회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포장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으나, 현재는 구성원이 증대함에 따라 상호 교류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개선으로 그는 120여명 회원의 전

문분야를 분석하여 4~5개 분과(미니클러스터 조직)를 구성, 분과별 모임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회원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술사회 운영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회원 연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민간기업의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사업 참여를 통한 수입금 확대 적립을 통하여 기술사회 위상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술사 전문분야별 미클(mini cluster)을 조직하여 산업인력관리공단 미클과 연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사회 사업 수입금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인식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회원들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포장업계에는 많은 포장관련 유관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박인식 회장은 “포장산업은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수많은 포장관련 유관단체가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포장전문인력양성과 포장산업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포장기술사회는 단체의 이익보다는 기존 유관단체의 고유 업무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국 포장산업 발전과 위상강화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국가 공인 포장기술사 자격을 획득한 최고의 포장 엔지니어들의 단체인 한국포장기술사회. 포장진흥법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제7대 박인식 회장이 이끌어 나갈 포장기술사회의 발전에 주목해 본다. [K]